



“저작 톨 외길 10년 이젠 해외서 승부할 터”

세종나모인터랙티브 김상배 사장

“세 중나모는 95년 창립 이래 토종 웹 저작 톨 업체로서 한 길만을 걸어왔습니다. 웹 저작 톨인 나모 웹에디터는 이미 전 세계 10여개 국가에 수출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지요. 올해는 기반기술인 저작 톨을 기반으로 신규 사업에 적극 매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배 세종나모인터랙티브 사장은 “10년 동안 축적된 웹 기반 제품 개발 기술력과 7년 동안 쌓은 글로벌 마케팅 노하우가 세종나모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 “저작 톨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

장서 승부를 걸겠다”고 말했다.

그간 대표적인 토종 SW업체로서 위상을 떨쳤던 세종나모이지만 때로는 풍파에 크게 휘청거리기도 했다. 더욱이 김 사장은 지난 2003년 경영권 분쟁에 따른 내홍을 겪으면서 하락세를 타기 시작한 것을 안타까워했다. 이 때 여파로 아직 재정분야에서 적자구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배 사장은 “기존 경영진들의 잘못된 투자와 계속된 내수 경기 침체에 따라 현재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신제품 론칭, 해외수출 강화 등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실제로 세종나모는 올해 들어 기업용 솔루션 제품군을 확대하고 모바일 등 신규사업을 전략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나모 웹에디터의 해외 수출을 적극 추진해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세종나모는 현재 미국·영국·독일·프랑스·대만·일본 등 세계 10여개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웹에디터 외에도 플래시 제작 톨, 이미지 편집 톨 등 저작 도구 라인업을 강화하는 등 해외사업에 전력투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모바일 사업 분야에서는 올 초 12개의 해외 SW유통망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콘텐츠 배급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정지작업을 마무리했다.

김 사장은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기 힘든 국내시장에서는 수익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진검 승부는 역시 해외 시장”이라며 “해외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나모 웹에디터 신제품의 경우 영문버전을 먼저 개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간 취약했던 고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 루마니아에 콜센터를 설립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며 “입체적인 시장 공략을 통해서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글 양기석 기자 · 사진 이혜성 기자